



아 동 과 환 경

(The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에 -

노재식 / 본지 편집위원장
본협회 부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아동과 환경

유엔인간환경회의(U. 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UNCHE) 개최 첫날을 오래 기리기위해서 6월5일을 세계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로 제정하기도 벌써 18년이 지났다. UNCHE의 권고로 1972년에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올해의 주제를 “아동과 환경(The Children and the Environment)”으로 정하고 환경을 적절히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전세계 어린이의 대부분이 환경위해도가 큰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 17억에 달하는 15세미만의 전세계 어린이인구의 82%에 해당하는 14억의 어린이가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중 최빈국내에서도 남달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수많은 어린생명들이 악화된 환경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이며, 식량, 보건진료, 주택, 교육 및 환경관리에 들어야 할 돈이라고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투자할 수 밖에 안된 도리가 없는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전세계 인구증가분의 90% 이상이 바로 이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중국 포함)에는 2억이상의 5세미만의 어린이가 절대빈곤이라는 악조건하에서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이다.

UNEP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1400만명에 달하는 5세미만의 어린이들이 보통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처럼 슬한 무능과 죽음이 가난한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는 현실이 저주스럽다. 국제아동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UNICEF)통계자료에 의하면 오염된 물과 직결되는 설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해마다 수백만명이 죽고 있는것이 밝혀졌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기오염 또한 매년 4백만명가량의 어린이들에게 급성 호흡기계통 전염병을 유발케 하여 생명을 앗고 있다는 얘기이다(선진공업국 어린이의 생명을 앗는 환경문제는 대기오염과 유해화학물질임).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오염과 빈곤이원인이 되어 죽게되는 수백만의 어린이를 구제하려면 환경관리를 더 잘 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치된 견해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수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이나 재해가 환경오염에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환경을 잘못관리한데서 연유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환경의 질적악화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 견해는 그 원인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상에 초점을 맞추려 드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얘기이다. 이는 모든 경제개발의 밑천이 될 각종 자원을 함부로 파괴하는 식의 단절적 개발을 단일한 자세로 선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런 따위의 단절적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일수는 없을 것이나 당장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를 유발시키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셈이다.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지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조는 그 개발행위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들에게 필요한것들을 위해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은 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도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한다는데서 출발해야한다. 지속적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토론을 할 경우 어린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미래세대의 직전세대적인 존재이기때문에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 즉 건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환경 등을 기성세대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미래의 세대가 필요로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을 재조명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요구를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 즉 미래의 어린 세대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의 복지문제가 말로 모든 환경, 개발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귀착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 했듯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이 살고온 환경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지닌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여겨왔다. 또 한 수 더 떠서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또 더 쉽게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설적전제는 이제 그 당위성을 잃은지 오래됐다.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말로 지구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최초의 폭력자로 낙인 찍혔기때문에,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구생태계보다는 훨씬 쾌적한 지구환경(대기, 토양, 물, 식생 등)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해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결국 지금까지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새로운 형태의 공정성과 평등성(특히 세대간의 평등성)이 인종간, 성간 그리고 국제적차원에서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일 것이다. 특히 세대간의 평등성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가 과연 어떠한 견해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인지 알 길이 없기때문에 매우 어려운 목표설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20세기를 마무리짓게 될 앞으로의 10년간 나아가서는 그후의 시간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의 과제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조우하게 될 것이다.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은 한, 소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사건으로 다소 희석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바로 1990년도 세계환경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차원 높은 의의를 찾을 수 있을것 같다. 민족의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속될 경우 우리 환경인들이 해야 할 일도 급증할것이기때문이다. 즉, 우리가 다루어야할 국토공간도 2배 이상으로 넓어지겠거니와 인구도 2025년전에 1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때문에 이에 비례한 에너지와 자원소비량도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환경악화도 조장될 것이다. 새삼 현존 어린이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지고 있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하는 힘과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여러 환경인들의 전투를 빈다. *